

가장 어려운 현장을 치유한 제자

- 복음으로 여는 디도서 -

다니엘 6:10, 디도서 1:12-14

정윤돈 목사님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중에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이 땅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다가 지옥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창세기 3장의 원죄,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해결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 생각을 바꿔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는 응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강단말씀의 제자가 되어서 말씀 성취의 축복과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디도서를 중심으로 ‘가장 어려운 현장을 치유한 제자’ 라는 제목으로 복음의 말씀을 증거 하고자 한다. 다니엘과 에스터를 비롯한 램넛트 7명은 모든 가장 어려운 현장을 복음과 말씀운동으로 변화시킨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다. 다니엘은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었지만 이유를 알았다. 나라를 빼앗기고 재앙이 온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누구의 탓을 하지 않고 자신과 친구들이 바로서면 된다고 생각했다. 사자 굴에 들어가는 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고레스 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었다. 여러 분이 어떤 현장 속에서도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란다. 디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한다.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그리스 출신이었다. 갈라디아 2장 3절에 보면 ‘헬라인 디도라고 말하고 있다. 이방인으로서 많은 유대인들을 상대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디도는 그러한 일을 훌륭하게 해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내용을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디도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과 받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는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디도는 확실한 복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믿음에 대한 소신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순종적인 사람이었고 모범이 되는 중요한 제자였다. 또한 디도는 사도바울의 전도사역 처음부터 끝까지 쓰임 받은 하나님의 그릇이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바울이 기록한 최초의 편지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디도의 이름이 이 갈라디아서에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디도서는 사도바울이 순교하기 직전 로마에서 기록한 성경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디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자 사도바울을 도와 쓰임 받은 하나님의 그릇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도바울은 이러한 제자 디도를 가장 어려

1. 그렇다면 그레데 섬과 그 곳에 있는 교회들의 문제는 무엇이였을까?

그레데 섬은 환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지만, 아주 나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이었다. 사도바울은 디도에게 그들의 영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1) 디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레데 섬에는 율법을 강조하는 할례파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많이 하고’, ‘속이는 자들이었다.

(2) 디도서 1장 11절에 보면 그레데 섬에는 지금의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있었다. 이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이단들이었다.

(3)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바울은 그레데 섬 출신 한 철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그들의 특성을 말하고 있다. 기원전 600년경에 그레데 출신의 ‘에피메니데스’라는 시인이면서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시인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던 기록을 바울이 인용했던 것이다. 1장 12절이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잠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이들은 이익과 돈과 자리만 탐하면서 노력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헬리어로 ‘거짓말하다’를 ‘크레티조(Cretize)’라고 하는데 ‘크레티조’는 ‘그레데 사람처럼 말 한다’는 뜻이다. 그레데 사람들은 이렇게 단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거짓말을 잘 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그레데 사람들의 거짓말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우리는 제우스의 무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제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으로 실존인물이 아니지 않은가. 그 정도로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들이었다.

(4) 그레데 섬 사람들의 또 다른 문제는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져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었다. 디도서 1장 15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자신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다.

(5) 크레데 섬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러한 교인들은 하나님은 시인하지만 행위는 전혀 따라주지 못한 사람들이다. 불신자들, 타락한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그레데 사람들이 문제가 많은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 그레데 섬은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의 고향 이고 유럽최초의 문명의 발상지이면서, 최초로 우상이 만들어진 섬이었기 때문이다. 이 문명을 ‘미노아 문명’이라고 한다. 우상문화가 많은 지역과 가정은 영적인 문제, 성격적인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완전 복음으로만 해결된다.

2. 이렇게 황폐하고 악한 현장의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 할 수 있을까?

디도서에 보면 사도바울은 창세기 3장의 결과로 12가지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레데 사람들에게 붙잡아야 할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

(1) 사도 바울은 먼저 영적인 지도자들이 치유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디도서 1장 7절-9절 말씀이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

가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2) 복음적인 종지자들을 세워 곳곳에서 빛을 발할 때 그레데는 치유될 수 있다. 디도서 1장 6절에 장로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3)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세밀한 삶의 방법을 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다. 사도바울은 5종류의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권해야 할 말씀을 하였다. 그 5종류의 사람은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와 종이다.

① 늙은 남자는 디도서 2장 2절에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다.

② 늙은 여자는 디도서 2장 3절에,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의외로 여성들이 알코올과 도박 중독자들이 많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2장 4절에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말한다.

③ 젊은 여자는 디도서 2장 4절에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2장 5절에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④ 젊은 남자는 디도서 2장 6절에 이와 같이 나온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2장 7절에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2장 8절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 이유는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⑤ 종들(직장인) 디도서 2장 9절에 이와 같이 나온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회사에서 불만, 불평하는 직원들이 있다. 2장 10절이다. '흠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유가 바로 나온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⑥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디도서 2장 15절이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다락방) 권면하며(미션홈)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지교회)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디도서 3장 2절에도 말한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이야기하고 있다. 3장 9절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3장 10절이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5) 그리고 엄하게 책망도 하라고 권하고 있다.

① 디도서 1장 9절에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② 디도서 1장 13절에는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다.

③ 디도서 2장 15절에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라고 말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레데와 같은 악한 세상을 치유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

(1) 디도서 2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기 때문이다. 디도서 2장 14절 중간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용서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디도서 2장 14절이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2) 또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들의 의로운 행위를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우리들이 구원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들의 죄와 행위와 관계없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디도서 3장 5절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레데 섬의 사람들과 같이 악한 체질을 가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이 그리스도를 그들의 영혼과 삶의 주인으로 바꿔주는 길 밖에 없다.

(3) 디도서 3장 6절처럼 오직 성령충만을 받을 때 가능하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4)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어 이 땅과 천국에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란다. 디도서 3장 7절이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붙잡을 CVDIP는 무엇일까?

1. Covenant, 언약이다. 우리는 가장 어려운 현장에 파송되어도 그러한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언약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겠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그레데 섬과 같이 각종 우상과 타락한 문화로 찌든 가문과 237나라들을 치유하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우리들이 24시간 불신자 상태에서 고통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하는 일에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는 그레데 섬처럼 우상문화에 찌들어서 악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현장을 복음적인 이미지로 바꾸는 말씀운동을 시작해야 하겠다.

5. Practice, 실천이다. 이제 여러분들도 세상과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디도처럼 황폐해진 개인과 현장을 치유해 주는 사역에 도전해 보시기 바란다.

이번 한주간도 치유의 증인으로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영적인 방향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중에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굳게 붙잡고 성취하는, 그래서 응답 받는 증인이 되어서 많은 생명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